

# 10월 3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0월 3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GDP 호재로 랠리..다우 200p 급등	뉴욕증시가 29일(현지시간) 급등세로 마감했음. 미국의 3분기 GDP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점이 호재로 작용. 지표개선으로 경기민감주가 급등했고, 달러화 약세는 상품주 랠리를 촉발했음. 다우 지수는 199.89포인트(2.05%) 급등한 9962.58을, 나스닥 지수는 37.94포인트(1.84%) 오른 2097.55를, S&P 500 지수는 23.48포인트(2.25%) 상승한 1066.11을 기록했다.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출발.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3.5%의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한 점이 큰 호재로 작용. 이같은 성장률은 최근 2년래 가장 높았고 시장의 예상치도 웃돌았음.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조금 많았지만 그래도 전월비 감소세를 보인 점에 투자자들은 만족스러워했음. 여기에다 프록터 앤 갬블(P&G)과 모토로라 등 주요 기업들의 예상치를 웃돈 분기실적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줬음. 특히 미국의 개선된 GDP 수치는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하락을 촉발했고, 이는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이는 국제유가와 금속가격의 상승세로 이어져, 주식시장에서는 상품주들이 랠리를 전개했음.
GDP 호재로 경기민감주↑..달러약세로 상품주도 랠리	주택건설주도 GDP 호재를 만끽했음. 지난 3분기중 주택건설 부문 투자가 연율로 23.4% 급증하며 3분기 GDP를 0.5% 끌어올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음. 모기지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택거래를 도모하고 주택건설 부문의 투자를 자극했음. 주택부문이 GDP에 기여한 것은 2005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며, 지난 2분기에는 23.3%나 감소하며 GDP를 끌어내렸다. 톨 브라더스, KB홈즈, 호브내니언, 비저홈즈 등 일제히 상승했음.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감소세에 투자자 `안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24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53만1000건에서 1000건 감소한 53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52만5000건에 비해 조금 많은 수치였음. 그러나 전주비 감소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안도했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 보다 6000건 감소한 52만6250건을 기록했다. 1주 이상 지속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건수(17일 마감기준) 역시 전주대비 14만8000건 감소한 580만건을 기록했다. 이는 올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급등하며 80달러선 육박	국제유가가 29일(현지시간)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80달러선에 바짝 다가섰음.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자 원유 수요 회복 기대감이 작용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41달러(3.1%) 급등한 79.87달러로 마감했음.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연율 3.5%를 기록한 점이 원유시장에서 대형 호재로 작용했음. 미국의 GDP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것은 1년만임. 미 상무부가 이날 오전 3분기 GDP 수치를 발표한 직후 국제유가는 3.9% 급등했고, 이후 3%대의 급등세를 유지한채 거래를 마감했음. 특히 GDP 개선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되면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점이 원유 매수세를 더욱 촉발했음. 여기에서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울들어 일한 흐름을 보여왔던 뉴욕증시가 큰 폭 반등세로 돌아선 점도 원유 시장 투자심리에 도움을 줬음.
반도체 업계 "내년 최소 7조 투자할 것"	반도체 업계가 내년 최소 7조원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음. 국내 반도체 업계는 29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한 `제2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며 "업계 전체로 내년에 최소 7조원,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총 22조원 이상의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음.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오현 반도체산업협회장(삼성전자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반도체 경기는 지난 2년간의 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9월의 반도체 수출은 최근 3년간 최대의 증가폭을 기록하며 수출 품목 1위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보금자리, 일반공급분 1순위 마감..사전예약 종료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에 대한 일반공급 사전예약 청약결과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음. 국토해양부는 지난 26~29일 신청접수를 받은 일반공급 사전예약 청약결과 배정물량 6072가구에 총 1만9334명이 신청해 평균 3.2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고 전체 물량이 1순위에서 마감됐다고 29일 밝혔음. 이에 따라 지난 7일부터 신청을 받은 보급자리주택 시범단지 1만4295가구에 대한 사전예약 청약이 모두 마무리됐음.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예약 청약 마감결과 총 공급물량 1만4295가구에 5만8914명이 신청해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예약 당첨자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이후 보급자리주택 홈페이지나 사전예약시스템, 수원 보급자리주택 홍보관등에서 확인할 수 있음. 예약 당첨자는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한 당첨자 구비서류를 갖춰 당첨자 발표때 게시되는 기간내에 제출해야 함. 예약 당첨자들이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당첨이 취소됨. 특히 특별공급 자격과 가구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 청약시까지 유지해야 함. 국토부는 예약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2~18일 보급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평면구조(방수, 욕실수), 인테리어, 마감재,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벌여 주택 설계때 이를 반영할 계획.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